

SBS 매거진 6

2000



10주년

TV Ch 6 / POWER FM 107.7MHz / 표준 FM103.5 MHz / <http://www.sbs.co.kr>

SBS

CONTENTS 6

2 0 0 0 S B S M A G A Z I N E



표지설명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수줍어 할 줄 아는 소박한 남자, 송승헌. 그는 모래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좋아하고 모두 누려보고 싶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담보로 맡기고 결코 쉽지 않은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사진/조광희**



04

SBS 2000년 6월 6일
이제는 생명이다

SBS 매거진 2000년 6월호

- 통권 제103호 2000년 6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5316
- 발행·편집인 / 송도균 주간 / 송석형 부주간 / 박희설 기획 / 남지혜, 이정숙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369-1114
- 편집·디자인 / 디자인 비, 전화 382-3828 • 스캔 및 출력 / (주)스타트, 전화 2264-2050
- 인쇄인 / 이건호 인쇄 / (주)영문문화사, 전화 2274-9250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sbs.co.kr입니다.

- 04 월화드라마 / 「도둑의 딸」
풍자와 해학이 있는 훈훈한 세상 · 배국남
- 10 스페셜 이벤트 / 「새 천년 기아체험 24시」
굶으면 살맛 나는 세상 · 남진희
- 12 드라마 스페셜 / 「팝콘」
열정으로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일과 사랑 · 김종혁
- 18 주말 시트콤 / 「돈.COM」
돈 한번 벌어볼까? · 최용욱
- 20 커버스토리 / 송승헌
변신을 꿈꾸는 아름다운 청년 · 이지혜
- 24 제작 현장 / 「덕이」 오픈 세트장
아름답게 떠오르는 그리움의 시간들 · 박경애
- 26 포커스 / 김정은
즐겁고 경쾌한 밤 나들이
- 28 포커스 / 정지영
그녀가 채워가는 빛깔은?
- 30 화제의 코너 /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의 '조작 TV'
진실의 양면을 찾아라 · 김일중
- 32 프로그램 뷰 /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불 꿈은 역시 길몽! · 전수진
- 33 기획 / 인터넷+방송
형식탈피로 뉴미디어를 선도한다 · 김도현
- 36 zoom / 서상록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최용욱
- 38 방송가 사람들 / SBSi e-Commerce 팀장 진은희
이주 특별한 인터넷 쇼핑몰을 꿈꾸며 · 김정덕
- 40 스튜디오 창 / 「책하고 놀자」
착하게 놀아, 말어? · 김갑수
- 42 라디오 세상
- 44 자회사 소식
- 46 TV 및 라디오 편성표
- 50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51 이제는 생명이다 · 손범규



10

18



풍자와 해학이 있는 **훈훈한 세상**





기획/윤영목, 극본/김운경, 연출/성준기
월, 화요일 밤 9시 55분 방송

지 방 사람들이 서울을 난생 처음 올라 올 때 느낌이 하나있다. 화려함으로 치장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불행이라는 단어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같은 환상을 느낀다. 하지만 머지 않아 서울에도 불행의 등가물이 되어버린 산동네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텔레비전을 보면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서 느꼈던 환상을 느낀다. 텔레비전 속 세상은 나와 별개의 세계이며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텔레비전 속에서 내가 딛고 사는 세상과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즐거움이다.

드라마의 작가와 연출자, 그리고 출연진을 보면 방송되기 전 드라마의 향취를 알 수 있다. 「도둑의 딸」의 김운경 작가, 성준기 프로듀서 그리고 주현, 손현주를 비롯한 출연진, 바로 이런 기쁨을 주는 제작진들이다.

김운경의 「서울의 달」, 「파랑새는 있다」 등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 옆집에 살 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려내는 사랑과 정이다. 성준기 프로듀서 역시 마찬가지다. 시청자들이 「은실이」, 「옥이 이모」, 「엄마의 깃발」, 「달팽이」 등 그가 연출한 작품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삶의 진정성과 건강성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옥이 이모」도 역시 두 사람이 견지한 삶의 입장들이 잘 나타나 있다.

두 번째로 작업을 함께하는 「도둑의 딸」 역시 나의 세상과 다른 세계가 아닌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나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웃을 중심으로 사랑과 미움, 그리고 갈등을 풍자와 해학이라는 특유의 스타일로 재미와 감동을 전하려 한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 김운경은 “재미라는 그릇 속에서 현 시대를 풍자하고, 사람만이 희망이고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주겠다”고 했다. 성준기 프로듀서는 “도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 도시에 사는 폼나지 않는 인간들이 외롭게 사는 이야기로 연애보다는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언급 중에서 한국 드라마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향하려는 태도가 개입돼 있다. 재미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아픔도 없고 감동도 없는 드라마가 허다하다. 또한 사랑 만능주의에 빠져 정작 중요한 사람이 없다. 폼나는 사람만 브라운관을 가득 채울 뿐 폼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며 가족의 진정한 자화상은 텔레비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도둑의 딸」의 공간과 인물 구성에선 두 제작진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보여준다. 공간적 배경을 보자. 이 드라마는 서울 성북동 산동네, 안양 교도소, 일산 경찰서 등지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인공인 전과 12범 김광수(주현 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 그리고 경찰서 강력 5반, 서민들이 즐겨 찾는 상가가 「도둑의 딸」의 주요한 세 무대가 된다. 인물들 역시 이같은 무대에 맞는 군상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드라마를 이끌어 간다. 단 한 명만이 전과자가 아닌 김광수의 가족, 이들 가족

성준기 프로듀서

“진솔한 서민들을 그릴 때가 즐거워”

지난해 인기와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은실이」를 취재하며 맞보는 즐거움 중의 하나가 성준기 프로듀서를 만나는 것이었다. 「은실이」 작가 이금림은 성프로듀서를 ‘작업을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런 성준기 프로듀서를 또 다시 「도둑의 딸」로 만났다.

-왜 드라마에서 폼나지 않는 사람들을 주연 그룹으로 내세우는가?

- ▶ 진득하고 진솔한 서민들을 작품에서 다룰 때가 가장 즐겁다. 체질인가 보다. 내 이웃의 이야기가 나에게 편한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작업을 한다.
- 성프로듀서의 특기는 무명 연기자를 유명 연기자로, 조연을 주연급으로 발돋움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연들을 시청자들에게 사랑 받게 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 ▶ 연기자들이 잘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기에 상관없이 연기력을 판단해 캐릭터에 맞는 탤런트를 캐스팅 한다. 그리고 드라마에선 조연, 주연이 따로 없다. 모든 출연진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도둑의 딸」에 임하는 각오는.

- ▶ 그 동안 작업에 임하는 자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드라마가 끝난 뒤 기획 의도처럼 외롭게 살지만 사람 냄새나는 가족 드라마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또한 자연스런 연기와 연출력이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은실이」가 진행되며 즐거움을 줬던 성준기 프로듀서가 「도둑의 딸」에서도 더 많은 시청의 기쁨을 주었으면 한다.



주변 도시에서 사는 폼나지 않는 인간들의 가족 이야기
다른 세계가 아닌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나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웃을 중심으로 사랑과 미움, 그리고 갈등이 풍자와 해학이라는 특유의 스타일로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해준다.



과 범죄를 매개로 엮히는 경찰, 그리고 두 집단과 관계를 형성하는 상가 사람들.

시청자는 말할지 모른다. 도둑 가족은 극단적인 인물 설정이 아니냐고. 한 걸음 더 내딛어보자. 절도는 분명 현행법상 범죄이자 악이다. 하지만 이기심, 탐욕, 출세지상주의, 배금주의 등 우리 자신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러한 악이나 결점이 도둑질이라는 상징적인 등가물로 간주하면 도둑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우리에게 보편화된 상황 설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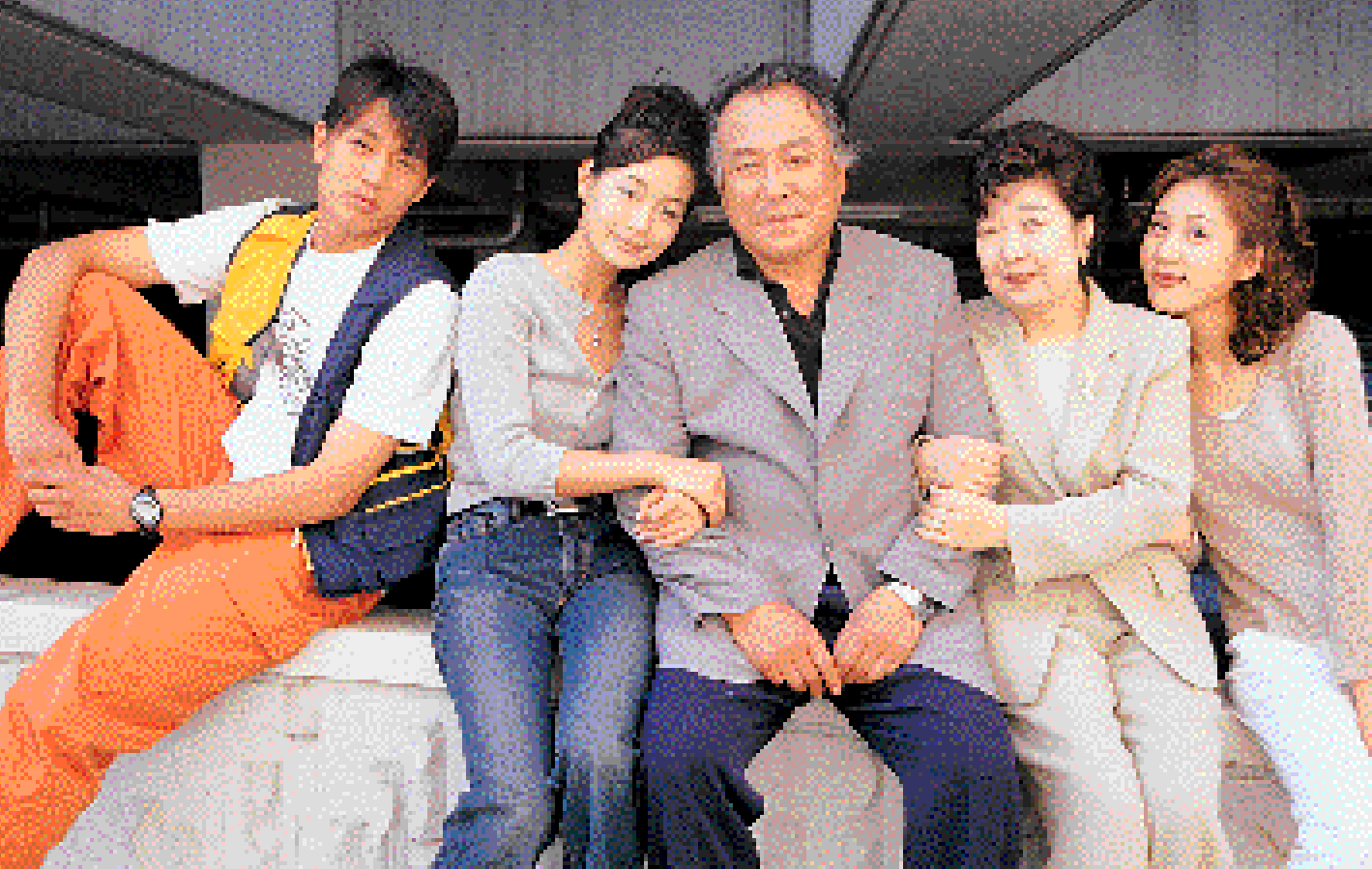
가족 구성원이 대부분 도둑이지만 사랑이라는 힘에 의해 악이 개선되고 보완되는 과정은 아름다움 자체이고 인간 사는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도둑의 딸」의 드라마적 완성도를 기대하게 하는 요소는 작가의 탄탄한 대본, 연출가의 건강한 연출력 외에 출연진들의 구성이다. 이 드라마에는 이미지 하나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내 사라지는 연기력 부재의 탤런트가 나오지 않아 좋다. 가수같지 않은 가수, 연기자같지 않은 탤런트가 대중문화의 혼돈을 가져온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연기자의 본질은 연기에 있다.

전과 12범으로 늘 어떻게 도둑질을 해서 먹고살까만을 걱정하며 세 번 결혼하는

단 한 명만이 전과자가 아닌 김광수의 가족, 이들 가족과 범죄를 매개로 엮히는 경찰, 그리고 두 집단과 관계를 형성하는 상가 사람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사랑이라는 힘으로 세상이 살맛나는 곳임을 일깨워준다.





과정에서 과편화한 가정이라도 일구고 나가는 가장 역을 하는 주현, 그의 세 번째 아내로 자신의 현재 입장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서승현은 이미 연기가 농익은 중견 연기자이다. 또한 폼나지 않는 인물군으로 등장하는 조형기, 양금석, 이계인, 최란, 장항선 등은 주연 못지 않은 조연 연기로 정평이 나 있는 연기자들이다.

젊은 연기자로 주연으로 나서는 두 인물, 김광수의 딸 명선 역의 김원희와 손해만 보지만 진솔한 형사 민규 역의 손현주. 「서울의 달」, 「홍길동」, 「은실이」, 「퀵」 등에서 젊지만 녹록치 않은 연기력을 선보인 김원희와 「첫사랑」, 「해피 투게더」, 「달콤한 신부」 등에서 그만이 창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소화해 낸 손현주가 빛어낼 사랑의 변주곡은 기대해 볼 만하다.

드라마의 스토리 라인은 형사인 민규가 김광수의 만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되고 명선과의 사랑, 그리고 도둑 가족의 정화과정으로 끝을 맺는다.

처음에는 아버지 김광수가 민규에 의해 마음을 다 잡고 큰 오빠인 덕구와 부인 월순, 그리고 김광수 아내인 박여사가 도둑질로 상징되는 악의 바이러스를 민규의 진솔한 사랑의 백신으로 인해 선으로 바뀌는 과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어느 정도 결점과 악에 감염된 우리 역시 드라마가 끝날 때쯤, 민규의 사랑의 백신 덕분에 정화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SBS**

글/배국남 · 한국일보 방송담당 기자, 사진/김연식

굶으면 살맛 나는 세상

연출/강부길, 진행/박상원, 이영애, 김혜자, 이정현, 이지훈, 김민희
방송/6월 24일 오후 4시(1부), 밤 12시(2부),
25일 아침 8시 30분(3부), 오후 4시 30분(4부)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텔레비전을 켜면 독특한 음식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기행하는 프로그램이 줄을 잇고 인터넷상에는 각종 음식사이트, 미식이 동호회가 성행하고 있다. 이렇듯 굶기는커녕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요즘이지만 아직도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키케로의 말은 여전히 옳다. 20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기아와 죽음의 현장으로 쫓겨난 아이들이 무려 8억 2,800여 명. 현재 우리나라에도 15만 3,000여 명의 결식아동이 하루치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WHY? 「새 천년 기아체험 24시간」은 올해가 한민족 최대의 비극 6·25전쟁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굶주림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아버지 세대와 신세대가 24시간동안 함께

굶으면서 지난날의 가난과 전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에게는 물론,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온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WHEN? 이달 24일부터 2일간, 총4부로 나뉘어 약 5시간 동안 마라톤 방송되는 「새 천년 기아체험 24시간」. 1부는 24일 오후 4시, 2부는 같은 날 밤 12시, 3부는 25일 아침 8시 30분, 4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 각각 방송된다. 물론, 기아체험 캠프, 즉 굶기 행사는 24시간 동안 계속된다.

WHERE?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과 제주도 비자림 야영장에서 실시, 이원 생방송된다.

WHO? 「새 천년 기아체험 24시간」의 진행자로는 박상원, 이영애, 김혜자와 신세대 스타 이정현, 이지훈, 김민희가 린

레이식으로 공동진행을 맡았다. 가수 김현성과 이수영은 현지 취재한 케냐 우간다, 코소보의 기아실태를 소개한다.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무대도 준비돼 있다. 김건모, 이정현, 이지훈, 클론, 원타임, 김현정, 샤크라, 백지영, 신화, 윤종신, 채정안, 베이비복스 등 인기가수들이 참가한다.

HOW? 기아체험행사에 참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WWW.FAMINE24.NET으로 접속하면 끝.



SPECIAL? 「새 천년 기아체험 24시간」은 사이버축제로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이용해 연락이 닿기 어려운 독도, 최전방 군부대 등을 비롯해 세종기지, 남미, 아프리카,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기아체험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박세리, 박찬호, 남나리 등 해외에서 활약중인 국내스타들의 기아체험 격려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처 행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각자의 가정에서 기아체험을 할 수 있는 홈캠핑 프로그램 운영함과 동시에 현장에 나와있는 연예인들과 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한다.

WHAT? SBS와 월드비전이 함께 마련하는 「기아체험 24시간」은 97년에 시작, 올해로 4회를 맞는다. 그동안 기아체험 행사를 통해 매년 1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캠프장에 모여 꼬박 24시간을 물과 음료수로 견디며 굶주림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다. 24시간동안 굶는 아이들을 격려하며 친지나 부모들은 후원금을 냈고 시청자들은 ARS를 통해 한 통화당 2,000원씩을 기부했다.

이들의 정성이 합쳐져 97년 19억 9,000여 만원, 98년 23억 9,000여 만원, 99년에는 17억 9,6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여졌고, 이 모금 액은 북한에 6개 국수공장을 짓는 등 긴급 구호사업과 아프리카, 코소보, 캄보디아 등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난민촌 기아들, 그리고 국내의 결식아동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졌다.

2000년에 2,000원이면...

「새 천년 기아체험 24시간」을 통해 모아질 성금은 북한의 국수공장과 수경재배농장의 지원을 강화하고 아직도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동티모르, 민족 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코소보 등 긴급 구호사업장과 지난 3년 간 해왔던 국내 결식아동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0년 현재 2,000원 전화 한 통(700-1234)이면 북한 어린이 20명에게 국수 한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루 24시간동안 굶주림을 체험하는 「기아체험 24시간」은 가난한 이들을 기어워하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누군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사랑을 품앗이하자는 것이다. **SBS**

글/남진희 · 「새 천년 기아체험 24시간」 작가

젊음은 언제나 밝고 경쾌하다. 그들의 열정은 넘치다 못해 마치 팝콘처럼 툭툭 튀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감춰진 내면은 있게 마련. 속깊이 묻어둔 마음의 상처는 때론 부딪히고 불을 튀기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극복된다. 그게 바로 젊음이 아닐까? 드라마 「팝콘」은 이런 신세대 젊은이들의 좌충우돌하는 일과 사랑을 그려낸다. 그들이 아픔을 극복하며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자.

팝콘. 팡팡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하얀 팝콘이 눈처럼 쏟아진다. 두 젊은 남녀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다. 16부작 드라마 스페셜 「팝콘」은 팝콘처럼 툭툭 튀지만 순수한 젊은이들의 일상 생활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팝콘」의 극본을 쓴 이희명 작가와 연출을 맡은 장기홍 프로듀서는 이미 1998년 「미스터Q」, 1999년 「토마토」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었고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2000년에 들어서 이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드라마가 젊은이들의 사랑과 꿈, 갈등을 다룬다는 면에서 그전의 작품과 비슷할지 모른다는 선입감을 가질지 모르나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도의 드라마다.

기획/이강훈, 극본/이희명, 연출/장기홍
수, 목요일 밤 9시 55분 방송

열정으로 툭툭 튀는 젊은이들의 일과 사랑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일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팝콘」, 젊은 날의 사랑은 열정이 넘치기에 요란한 폭발음을 내기도 한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황하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갈등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힘이 있다. 「팝콘」에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순수하고 젊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실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극의 구성, 전개 방식, 영상 기법 등에서 예전 작품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자 하기에 장기홍 프로듀서는 촬영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촬영은 「머나먼 송바강」,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았던 서득원 촬영감독이 맡았다. “내용에 맞게 차분하면서도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그가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팝콘」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드라마는 경쾌하고 빠른 전개와 유머러스한 터치로 재미있게 펼쳐진다. 그러나 자극적인, 혹은 인스턴트식의 사랑을 다룬 감각적인 드라마는 아니다.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 인간애라는 감정이 잔잔하게 깔리는 드라마다. 장기홍 프로듀서는 오래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랑을 그려보고 싶다고 한다.

“과장되고 허구적인 면이 많은 만화 같은 분위기는 배제하고 마음 속 깊은 곳이 찡해지는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장기홍 프로듀서의 이번 작품에 대한 생각이다.

그래서인지 「팝콘」은 남녀 여러 명이 사랑 때문에 서로 싸우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드라마가 아니다. 평범한 젊은이 이영훈과 윤현주 두 사람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전개된다.

사진가 이영훈(송승헌 분)은 감성이 풍부하지만 겉으로는 사교적이지 못한 투명스러운 말투, 다소 불량스러워 보이는 태도로 거칠게 행동하는 남자다. 남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런 그가 웨딩기획사에 사진기사로 입사하

전날 택시를 합승하면서 우연히 만났던 들은

이영훈 역을 맡은 송승헌은 이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1년 여 만의 드라마 출연이라 그 각오도 대단하다. 그는 그 동안 단정하고 성실한 남자였지만 이번 드라마로 젊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드라마로 거친 태도의 외로운 반항아로서 개성 있게 변신하려



않다. 그녀는 밝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순진하고 바른 성격을 갖고 있어 이영훈의 거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 이 둘은 일하는 방식도 달라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한다. 영훈은 어려서 엄마와 헤어진 상처를 안고 있으며 커서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외로운 남자다. 겉으로는 남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남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거친 태도를 보인다.

현수 역시 겉으로는 당당하고 활발하나 어려서 엄마를 잃고 외로워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고 지금은 하체마비 장애인인 동생과 살고 있다. 내면의 아픔을 감춘 채 밝게 열심히 생활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현수는 티격태격하기만 하던 영훈에게서 어느 날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웬지 모르게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는 영훈에게서 어린 시절 나침반을 보며 엄마를 그리워하던 아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늘 한곳만을 가리키는 나침반. 나침반을 보며 그리운 사람이 있는 그 곳을 떠올린다는 말에 놀라며, 결국 현수는 영훈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외로운 존재들로 사랑을 원하면서도 서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내면적인 갈등과 외로움을 이겨내려 하는 이들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려 한다.

이영훈 역을 맡은 송승헌은 이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1년 여 만의 드라마 출연이라 그 각오와 열정도 대단하다. 그는 그 동안 단정하고 성실한 남자의 이미지로 젊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거친 태도의 외로운 반항아로서 개성 있게 변신하려 한다.

장기홍 프로듀서

“단순하지 않은, 의미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보겠다”



경쟁에서 밀린 낙오자들의 화려한 재기와 사랑을 그린 「미스터 Q」, 생존 문제와 싸우면서도 순수한 꿈을 키워 가는 여자와 엘리트주의에 젖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여자 사이의 갈등, 그리고 화려한 신분 상승이 깔린 삼각 관계를 감각적으로 그린 「토마토」를 연출한 장기홍 프로듀서. 그가 1년 만에 다시 드라마를 맡았다.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는 담담한 마음으로 이번 드라마를 이끌어 가겠다”는 장기홍 프로듀서. 2000년 5월 중요한 시점에 드라마를 맡아 시청률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드라마의 내용 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만들고 결과는 미리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언제나 그랬듯이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예전 드라마를 흥미롭게 본 시청자들이 이번 드라마에서는 장기홍 프로듀서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그려갈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0년 여름에 그가 그리는 젊은이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팝콘」은 경쾌하고 빠른 전개와 유머러스한 터치
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그렇다고 자극적인 혹은
인스턴트식의 사랑을 다룬 감각적인 드라마는 아
니다.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 인간애라는 감정이
이 잔잔하게 깔리는 드라마다. 주인공들은 외로운
존재들로 사랑을 원하면서도 서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내면적인 갈등과 외
모움의 이겨내려 하는 이들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려 한다.

윤현수 역을 맡은 김규리 또한 신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라마에서 단독 주연을 맡기는 처음이다. 그래서 연기자로서 원숙해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다져가고자 한다.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에서 솔직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여자로. 이들 주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 축으로 이외의 출연자들도 나름대로의 사랑을 키워나가며 드라마를 풍성하게 한다. 웨딩기획사의 노총각 차장 오동석(권해효 분)과 사진 스튜디오 사장 조진만(최용민 분)은 웨딩기획사 노처녀 기획실장 배계순(이주경 분)을 마음에 두고 서로 사랑을 얻고자 한다. 이들의 사랑 또한 코믹하면서도 순수하여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소심하나 한없이 착한 회사의 막내 양아영(안혜란 분)과 윤현수의 동생으로 장애인이지만 긍정적인 사고로 밝게 사는 윤창수(정준 분)도 서로 위안이 되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편 같은 웨딩기획사의 직원 홍지희(양미라 분)도 자칭 섹시걸이라 자부하며 회사 일보다는 연애에 모든 정열을 쏟아 부을 정도로 남자의 사랑을 찾아 헤맨다. 각종 오락프로그램과 광고에서 강한 개성을 보여준 양미라가 이번 드라마에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중이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비정하고 타락한 욕망의 세계를 들여다보거나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루는 주인공을 통해 잠시 대리 만족을 느끼는 환상에 빠져볼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봄날 햇살같이 따스한, 잊지 못할 애잔한 추억으로 떠오르는 사랑 하나를 보게될 것이다.

젊은 날의 사랑은 열정이 넘치기에 요란한 폭발음을 내기도 한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황하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갈등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힘이 있다. 「팝콘」에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순수하고 젊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실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BS**

글/김종혁 · 자유기고가, 사진/조광희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송승헌과 김규리 이외의 출연자들도 나름대로의 사랑을 키워나가며 드라마를 풍성하게 한다. 웨딩기획사의 노총각 차장 오동석(권해효 분)과 사진 스튜디오 사장 조진만(최용민 분)은 웨딩기획사 노처녀 기획실장 배계순(이주경 분)을 마음에 두고 서로 사랑을 얻고자 한다. 이들의 사랑 또한 코믹하면서도 순수하여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한다.

주말 시트콤 | 「돈.COM」

click money.com

돈 한번 벌어볼까?



기획/윤인섭, 극본/최성호, 최용욱, 연출/정동천
토, 일 밤 8시 25분 방송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짜르트 돈가스, 아인슈타인 정식 등 메뉴와 경영상의 묘를 살려 차별화를 꾀한 '머리가 좋아지는 식당', 쪽죽죽을 이용한 '연예인 퀵 서비스 사업', 소방관 차림의 호프맨이 직접 맥주를 서비스하는 '119 호프집'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시트콤 「돈.COM」의 두 번째 특색은 새로운 캐스팅이다. 시트콤의 퀸이라고 할 수 있는 우희진(김유리 분)과 정찬(이장군 분), 정상훈(장혁 분), 그리고 정다빈(정다빈 분)이 「돈.COM」 사무실에서 돈버는 아이디어를 놓고 고민을 하고, 이형철(서해철 분), 장서희(서대리 분), 송미영(송미영 분)이 이벤트 사무실에서 「돈.COM」 사무실과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젊은 사장 우희진 그녀는 시트콤의 매력을 너무도 잘 아는 연기자다. 당차고, 바른 말 잘하고, 모범적이고, 똑똑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정찬과 이형철의 애정 공세를 한 몸에 받는 인물로 나온다.

그리고, 정찬과 이형철 그들은 극중에서 같은 오피스텔을 쓰는 친구인데, 사적으로도 절친한 친구 사이. 평소의 절친함이 녹아 더욱 리얼한 연기가 기대된다.

만능 스포츠맨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정찬과 코믹하고 당찬 연기로 다져진 이형철의 연기 변신을 주목하라.

우리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인물 서상록 씨. 호텔 롯데 프랑수식당 '웬부룬'의 웨이터. 전 삼미그룹의 부회장이었다는 전력을 가진 그의 웨이터 취직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그의 그런 전력은 정치권의 유혹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실속 없는 일이라는 한 마디 말로 단번에 거절해서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 바 있다. 아마도 그의 목직한 무게가 자칫

잘 눌러 줄 것으로 기대 된다.

「LA 아리랑」 이후 오랜만에 돌아온 정동천 프로듀서 「돈.COM」은 시대를 가로막는 '돈'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려 자처하며 사람들에게 희망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대놓고 돈벌기에 대해 얘기할 것이지만 그 속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할 것이다. **SBS**

글/최용욱 · 「돈.COM」 작가

글/최용욱 · 「돈.COM」 작가



21 세기 최첨단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코드는 아마도 돈 일 것이다. 돈으로 사람의 신용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식당에 가더라도 돈을 먼저 내는 게 인간적이고 호탕한 자(者)가 되며 밥값 한 번 안 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뒤에서 두고두고 애깃거리가 된다.

어느 때인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수가 '부자'라고 한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돈을 밝히는 일이 치사하거나 천박한 것이었다. 가끔 "넌 왜 일하니?" 묻는 사람들에게 "저요? 돈을 벌려구요." 라고 말하면 "재는 목표가 좀 이상하다? 돈 밝히는 애치고 인간성 좋은 애 못 봤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하다. 자신의 목표가 '부자'라면 대학을 포기한다. 굳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명예만을 주는 구역으로의 편입을 거부한다. 다만 이 시대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이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대 회사의 부속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 보다 인간다운 생을 누리는 것. 자신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고, 자기 몫의 여유(余)를 철저히 쟁여둔다. 그 일말의 여유, 숨막히게 굴러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자하는 욕망, 뉴 밀레니엄을 사는 사람들의 꿈. 「돈.COM」은 그런 욕망과 꿈속에서 기획되었다.

시트콤 「돈.COM」은 세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가 기존의 많은 시트콤과의 차별화 전략이다. 시트콤 「돈.COM」은 극중에서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고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따끈따끈하고, 실용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작자들의 아이디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통해 실제로 「DONNU.COM」이라는 사이트를 인터넷 상에서 운영하며,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칫, 돈을 버는 아이템이라는 딱딱함이 극의 전반을 평면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지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보면 기우에 지

변신을 꿈꾸는 아름다운 청년

송승헌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 깔끔한 이미지, 부드러운 말투, 어느 날 불쑥 브라운관에 등장한 그의 첫인상은 이랬다. 어디서 보았던가. 사람이 많은 길거리도 아니고, 분위기 좋은 찻집도 아니고, 상큼한 바람이 솔솔 부는 여행지였던가. 생각을 더듬어 거슬러 올라 가노라면 가만히 떠오르는 그곳, 아마도 그곳은 꿈 속이 아니었을까. 금박이 박힌 망토를 휘날리며 하얗게 빛나는 말을 타고, 반짝이는 유리성에 살던 사람. 사춘기 여학생의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 본 얼굴에, 순정 만화책에서 방금 뛰어 나온 듯한 서늘한 눈매의 남자, 그는 송승헌이다.





나만의 색깔을 찾아서

까만 펜으로 공들여 그려 넣은 듯 진한 눈썹은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 아래로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곱게 새겨진 두 눈이 시원스럽게 빛난다. 아직도 풀잎같은 나이 스물 다섯, 사랑에 빠진다는가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 자신이 얼마나 미남인지도 모르고 스타가 되어버린 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스타가 되었음을 실감한다. 그들이 유명해졌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은 평범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평범한 친구들과 평범한 시간을 나누거나, 동료 연예인들과 인간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를 재미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왕자 송승헌은 어린 시절 개구쟁이이기도 했다. 다섯 살 때, 형이 애지중지하는 자전거를 욕상으로 끌고 올라가 마당으로 밀어 던지며 놀 정도였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장난기 어린 표정의 근원인가보다.

우연한 기회에 모델로 처음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 뒤 본격적으로 연기 세계에 뛰어든 것은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 출연하면서부터이다. 코미디와 드라마 그 사이를 연기해야 하는 시트콤은 초보자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분야였다. 그러나 그는 해냈다. 남을 웃기는 재주라고는 눈썹만큼도 없는 그가 주는 썰렁한 즐거움은 애교스럽다 못해 사랑스러웠다.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그는 말한다.

그가 연기자로서 내면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한 건 「그대 그리고 나」에서 민규를 만나면서부터이다. 민규의 내면을 고민하면서 그는 성장했고, 향기로만 남아있는 모성이 그리워 절규하던 소년 민규는 그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다. 그의 검은 눈에 우수가 흐르고 깊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민규를 잊지 못한다. 이어 「승부사」, 「해피 투게더」, 「러브스토리」, 영화 「카라」를 거치며 그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연기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다. 새로운 세계는 너무나 크고 넓었으며, 자신이 연기자로서 어느 세계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엔 연극하는 분한테 연기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연기엔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이나 감정이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지 않고는 캐릭터를 살려낼 수 없거든요. 요즘은 나만의 색깔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있고요. 이전 하고 있는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연스럽게 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의 눈이 빛난다. 오랜만에 다시 브라운관에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더불어 굳은 의지도 빛난다. 그는 SBS 드라마 스페셜 「팝콘」에 남자 주인공 ‘영훈’으로 캐스팅 됐다. 거의 일 년만의 일이다. 그는 자신이 업그레이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다행인 점은 느낌이 좋다는 것이다. 「팝콘」의 ‘영훈’은 결혼 전문 카메라 기사로 그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인물. 나이가 비슷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 표현해 내는 데 부담이 없고, 드라마 속에 설정된 환경도 익히 보아온 것들이다. 늘 카메라 앞에서 표정 짓던 그가 이제 뷰 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찍어낼 자신이 있다.



때론 뜨거운 젊음을 주체 못해 명동 거리를 신나게 활보해 보고도 싶고, 멋진 대학 생활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세상의 평범한 즐거움은 빼먹지 않고 모두 누리보고 싶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담보로 맡기고 결코 쉽지 않은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후회하지 않을 연기자의 길 친구, 스타크래프트, 비디오 보기, 운동, 이것들은 그가 꽤 좋아하는 것들이다. 또래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도 모두 좋아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론 뜨거운 젊음을 주체 못해 명동 거리를 신나게 활보해 보고도 싶고, 멋진 대학 생활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세상의 평범한 즐거움은 빼먹지 않고 모두 누리보고 싶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담보로 맡기고 결코 쉽지 않은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요즘 그는 '건달'의 세계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세상 속, 영화 속 건달들을 발견하면 유심히 지켜보고, 뭔가 배우려 애쓴다. 영화 속에서 멋진 건달이 되어보고 싶기 때문이다. 건달을 해내고 나면, 그 어떤 캐릭터도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좋아하는 카사노바풍의 순정과 배우 리처드 기어에서 카리스마의 극치 알파치노까지 두루두루 거쳐보고 싶다.

멀리 뛰기 위한 움추림이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는 너무 푸르고 눈부시다. 단지 아는 것은 갈 길이 멀다는 것뿐이다. 젊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스물 다섯 그의 패기는 그러나 적당히 고집스럽고 야무지고 견고하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멀어도 그곳에 갈 수 있다. **SBS**

글/이지혜 · 시인, 사진/조광희

아름답게 떠오르는 그리움의 시간들

아마도 386세대 정도라면 어린 시절 한 번쯤 남녀를 불문하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아본 적이 있겠다. 이발소 의자 양쪽 팔걸이에 긴 판자를 얹고 그 위에 앉아서 삭독삭독 자르던 머리칼, 헤어스타일이라고는 계집애들은 일자 단발이요, 사내애들은 바리깡으로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궁색하고 우울했던 그 때가 자꾸 아름답게 떠오르는 건 왜일까.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보글보

글 끊어 주시던 풋고추 섞인 된장찌개 냄새처럼 말이다.

이런 이발소가 SBS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덕이」의 세트장,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에 가면 있다. 「덕이」의 배경인 충북 월악산 자락의 드라마 속 작은 마을을 SBS 일산제작 센터에 꾸며 놓은 것이다. 어디 이발소뿐만인가. 미장원, 뉴스 타일 양장점, 만두가게, 솜틀집, 철학원, 서울 여관, 맛나 제과점, 삼천리 연탄, 덕산극장이 옹기종기 모여 그 시절 우리 내면의 궁색한 골목을 재현해내고 있다.



낮은 지붕, 덜컹거리는 문짝, 조그만 창. 골목에 발을 들어 놓자마자 젖어 들어 버린다. 허름한 건물 하나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과도 같이 깊은 곳으로부터 자라 올라온 듯하다. 고층 아파트와 빌딩 숲에 살면서도 이런 마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비록 세트장이지만 백 년이고 천 년이고 그 자리를 지킬 듯이 보인다. 때론 허름함도 힘이다. 우리 민족의 가난한 시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인 수제비가 언제부터인가 시내 식당가에서 별미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군데군데 붙어 있는 영화 포스터와 광고물, 표어가 시각을 자극하며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흔든다. 가까이 다가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 아주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갑고 즐겁다. 누렁고 거친 종이 위 촌스러운 글씨체의 포마드 광고, 밖에서 신나게 뛰어 놀다가도 어디선가 포마드 냄새가 나면 아버지를 느끼고 둘러보던 그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취를 잡자’는 문구도 반갑다. ‘반공방첩’은 또 어떤가. 등교 길 교문 앞과 학교 건물 맨 꼭대기 층을 장식하던 검

정 글씨. 이 삭막한 이데올로기적인 단어의 의미를 ‘평화 통일’부터 배우는 우리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거티브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시간이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리운 것이다. 이렇게 「덕이」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고자, 세트 디자인 담당인 SBS 아트텍의 서상정 국장은 동분서주했다.

“물론 시대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수’지요. 옛날 생각이 나도록 미장원과 이발소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작고 섬세한 부분이 살아나야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내 나이가 이삼십 대라 기억에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자료를 찾아내 당시의 시간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매우 애썼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트 디자인보다는 출연진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기 마련이지요.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전부지만, 배경이 없으면 인물도 없으니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SBS**

글/박경애 · 자유기고가, 사진/김연석



포커스 | 「기분 좋은 밤」 진행자

김정은



“기본 좋은 밤은 방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저 편하고 즐겁기만 해서 놀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기본 좋은 밤’ 이영자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어받은 김정은의 프로그램에 관한 첫 소감이다.

편소 발달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김정은은 ‘기본 좋은 밤’ 프로듀서에게 일찌감치 낙점되었다. 남승용 담당 프로듀서가 그녀에게 주문한 사항도 간단하다. 자세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는 것. 게다가 함께 진행하는 박수홍은 ‘기본 좋은 밤’ 선배답게 김정은이 어색하지 않게 하니, 오히려 망설임 없이(?) 밤쳐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김정은의 ‘기본 좋은 밤’ 나들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오도 만만치 않다. 잘 웃고 발랄한 성격은 살리며 차별화를 두고 싶다.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대형 버라이어티이자 교양을 가

미한 프로그램으로 이끌고 싶다. 물론 김정은의 이름을 걸고 코너도 하고 싶다. 지금은 드라마와 시트콤까지 하고 있어서 당분간 보류했지만,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코너는 꼭 진행할 계획이다.

즐겁고 경쾌한 밤나들이

“인기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진행해서 시청률이 떨어지면 안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잘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김정은은 며칠전 과로로 쓰러졌던 일도 잊은 채 또 다시 피땀한 일정 속으로 뛰어 들어 들었다. 밝고 건강한게를 외치며... 사뮈얼먼저

정지영

포커스 | 「하반기 TV연예」 진행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것과 차별화 시켜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싶어요. 물론 한 두달의 규모가 아니라 1년 규모의 계획을 짓고 싶어요.”

“한밤의 TV 연예에서 유명한 아나운서와 함께 그 동안의 빈 공백을 채워줄 장지영 아나운서를 영입 계획이다. 그동안 많은 생방송을 진행했지만 SBS 같은 연예 프로그램의 진행은 또 다른 긴장감을 준다.”

그러나 곧 익숙해졌다. 신배 유명한 아나운서와는 대형 무대에서 함께 진행을 맡았던 경험 때문에 호들또 잘 맞는다. “한밤의 TV 연예에서 아나운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깨고 변신을 도모해달라고 한다.”

그녀가 채워가는 빛깔은?

무엇보다 시청자들에게 진숙한 얼굴로 다가가 편안한 느낌을 전하고 싶다.

아직은 방송사 내에서 새내기 아나운서지만 1년 반 동안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처음엔 아나운서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싶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

떠한 역할이 주어지든지 그 역할에 어울리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못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송인의 모습으로. “정지영하면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방송을 잘하는 아나운서

가 아닌 웃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아니 훨씬 이전부터 꿈꿔온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강렬한 바람” 그 자체였다. 그래서 강렬한,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색을 간직했는지 모른다. [한밤

의 TV 연예]에서 그녀가 채워 갈 빛깔은 과연 어떤 빛깔인지 지켜볼 일이다. **사면/사형서**

진실의 양면을 찾아라



각 조작설이 제기되었고, 코닥필름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북새통 끝에, 미 정부측에서 허위 사실로 해명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그 필름의 진위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조작혐의에 연루되어 있고(물론 하나는 조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공통점 외에 한가지 공통점이 더 있다. 바로 두 프로그램 모두가 동일한 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의 새 코너 '조작 TV'는 거짓과 진실의 가치나 모럴과는 별로 상관 관계가 없다. '조작 TV'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시청자들의 열정적인 호기심이다. 로스웰 필름 원본의 제작사를 뒤져내 코닥사(社)에 생산 연도를 자문한다거나, 가짜 백만장자의 실체가 가난뱅이 연극배우일 뿐만 아니라, 아내를 폭행한 죄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이 잡듯이 뒤져내는 바로 그 에너지의 실체인 것이다.

다분히 인터넷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2000년 현재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모래사장에 내 던져진 것 같다. 그 전인미답의 모래사장이 어떤 사람에게든 보석상자로, 어떤 사람에게든 쓰레기통으로 비추지기도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엄청난 정보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판별능력이 달려있다. 컴퓨터와 텔레비전은 이런 경향을 사회 전체적인 조류로 확산시키는데 일등공신이다. '사랑'의 의미를 물었더니 13만 6,808건이나 되는 답을 제시해 주는 컴퓨터나, 그 무지막지한 정보의 양 앞에서 망연자실해하는 한 남자의 표정을 닮아갈 것을 외치는 텔레비전 광고나 결국은 한 팀처럼 보인다.

미 폭스 텔레비전이 지난 2월 저지른 희대의 해프닝을 기억하시는지? '누가 백만장자와 결혼하고 싶은가 (Who want to marry with multi-millionaire?)'란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자그마치 50명의 미인들과 한 명의 가난한 사기꾼이 밤 2시간 동안 미국 전역의 2,280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를 상대로 조작극을 펼쳤다.

또 한가지, 지난 1995년, 로스웰 사건의 우주인 검시장면이 담긴 어느 영국인의 필름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자, 즉



헛갈리는 건
정보의 양뿐만
이 아니다. 정보의 본질
을 판단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를
우린 겪은 것 같다. 기후체를 지내면 비가 온다

기심의 충족. 이 두 가지가 주말 밤 권태로운 시청자들을 위
한 '조작 TV'의 존재가치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청자들이 그럴듯하게 제시되는 이런
저런 정보의 물줄기에서 진짜 TV를 가려

고 믿던 원시농경사회처럼, 진위여부
와 상관없이 신봉만이 미덕이던 시대와
어쩌면 너무나 흡사하게도, 요즘의 우리
는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
지 구별해 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국가
의 수장이라고 배웠던 대통령이 검사들에
이끌려 감옥엘 가고 지성의 마지막 양심이라
믿었던 대학 교수들은 돈을 받고 아이를 입학
시켰다. '조작 TV'는 이런 진실의 양면성에 기
반을 둔다. '어쩌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조
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가려내 봅시다!' 라
는 뜨끔한 제의가, 다소 공격적인 뉘앙스의 '조작
TV'라는 제목에 담겨있는 속뜻이다.

'조작 TV'가 백만장자와의 결혼 사건과 다른 가장
큰 점은 다행히(?) 둘 중의 하나는 조작임을 미리 밝힌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거짓말을 시작할 테니 두 눈을 똑바로 뜨
고 단서들을 찾아내서 추리하고 주장해 보십시오' 하는 게임
의 형태이다. 이 코너가 주말 오락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은
다행히도, 진실은 찬양되고, 거짓은 응징받아야한다는 도덕
적 이분법과는 별로 관계없을 수 있는 면죄부를 준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일까 하는 긴장감의 포장, 그걸 가려내는 호



내는 일에 너무나 능숙하다는
점이다.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일에 이토록 전문화 된 데에
는 전직 대통령도, 대학 교수들도, 그리고 어쩌면 늘 거짓을
거짓이라 미리 말하지 못하는 텔레비전 자체에게도 심각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조작 TV의 비애'라고 말할 수
있을까? **SBS**

글/김일중 ·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작가, 사진/서창식

불 꿈은 역시 길몽!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800회 맞아 재정비

무

대가 온통 활활 불타고 있었다. 모두 혼비백산 달아나는데 누군가 불이 붙은 대형

폭탄을 끌고 나오며 '엎드려' 하고 소리쳤다. 정신 없이 엎드렸지만 광음과 함께

섬광이 나를 덮쳤다. 순간 눈을 번쩍 떴다. 꿈이었다. ●●●●● 지난 5월 10일 그 날은 전쟁

기념관에서 「좋은 아침」 800회 특집 콘서트」가 있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잔뜩 흐리기만 하고

비는 오지 않고 있었다. 차라리 일찍 오고 개야될텐데... 불 꿈이 길몽이지만, 꿈은 반대라는데 불이 아니라 물(비) 때문에 녹화가 엉망

이 된다는 뜻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 사실 이 날의 행사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콘서트는 개편 전 마지막 방송이고 바로 그

다음 방송부터 오랫동안 별렀던 「좋은 아침」 내용 개편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 오락가락 하는 빗속에서 행사는 차질없이 진



행되었고, 우의를 입은 4,000여 명 관중은 빗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환호했다. 800회를 지

켜봐준 시청자들의 애정이 제작진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출연진들도 환호하는

관중과 함께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시청률도 신승훈이 토크한 것보다 신승훈이 노래한

게 더 나왔다) ●●●●● 지난달 중순 실시한 개편은 70분짜리 토크쇼를 5일 내내 방송했던

지금까지의 구성을, 50분 토크와 20분짜리 VCR 구성으로 나누고, 수요일과 금요일 각각 「연예 특급」과 「TV 동의보감」이라는 비토크 구

성을 넣는 것이었다. 요일별로 이성미의 딸 조은비의 한글 배우기, 초보 엄마 조혜련의 육아일기, 불구가 된 개그맨 조정현의 재기의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조씨이기 때문에 일명 「조트리오」라고

부른다. 이 조트리오의 예감이 좋다. 개편 전에는 뒷부분에서 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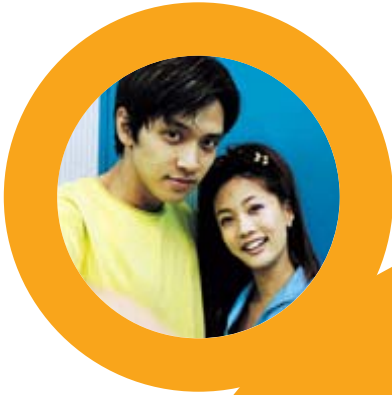
시청률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역시 불 꿈은 길몽인 것

같다. ●●●●● 내년 2월이면 1,000회를 맞는다. 1,000회 행사가

결코 자화자찬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회 한회 정성을 다해야겠다. 막

강 진행자들, 막강 제작사들과 함께 **SBS** ●●● 전수진 · 외주제작팀





「토크넷쇼」



「김진표의 야간비행」

형식탈피로 뉴미디어를 선도한다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흔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방송'이라고 불리는 웹캐스팅(Webcasting)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낸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요구하는 대규모의 송출 장비와 인력, 그리고 법적 제도적 규제라는 많은 장벽들을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비디오, 오디오를 전세계의 네티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만인의 미디어' (Media of Everyone) 시대가 열렸다는 다소 과격한 진단마저 나오게 하고 있다.

개국한 지 1년밖에 안 된 미국 인터넷 방송(Broadcast - America.com)의 접속 횟수가 현재 매달 4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매달 평균 30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 방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상업 인터넷 방송국은 400여 개가 넘으며, 요즘에도 이들에 한 개꼴로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SBS를 필두로 한 기존의 공중파 방송사들이 가장 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을 비롯하여 채티비, 캐스트 서비스, 두밥, 와우티브이 등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방송 사용자 인구는 작년을 기준으로 60만 명 정도로 산정되고 있으며, 올해 이미 1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의 진정한 중요성은 단지 인터넷 방송의 수용자들-소위 캐티즌(catizen)이라 불리는-의 확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마당 안에서 소위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다양한 미디어들의 경쟁, 융합, 복합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인터넷 방송, 웹 TV, 디지털 TV, 위성 디지털 방송 등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그 차별화의 기준인 유선이나 무선이나 하는 분류는 수년 내로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뉴미디어의 구분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그런 미디어들이 복합화되어 진화될 소위 '지능형 차세대 미디어'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미디어 사업자들의 진정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www.sk

현재 인터넷 방송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쌍방향성(interactivity)과 맞춤 서비스(customized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뉴미디어 시대도 역시 이같은 속성이 매우 강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던, 그래서 '시청자'라고 불렸던 미디어 수용자들은 스스로 미디어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획기적인 매체를 통해 이제 비로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가지게 되었다.

SBS가 방송하고 있는 「토크넷쇼」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이 같은 쌍방향성을 구현한 국내 지상파 최초의 프로그램으로서 선진국에서도 그 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생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돌발 퀴즈나 넷 경매와 같은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방송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형태이다.



「토크넷쇼」가 방송되는 순간, SBS인터넷 사이트에는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는 진풍경이 매주 벌어지고 있다. 시청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SBS의 미래 지향적 시도는 SBS의 인터넷 사이트

www.sbs.co.kr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다른 공중파들의 인터넷 사이트들과는 달리 SBS의 인터넷 사이트는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SBS 인터넷 방송의 또 다른 특징은 지금까지 오디오라는 제한성을 숙명처럼 안고 있던 라디오 방송을 시각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시도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박철의 2시 탈출」, 「김진표의 야간비행」,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등 일련의 방송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 진행자들이 어떤 표정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줌과 동시에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식 자체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뉴미디어의 미래를 쉽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대하고 또한 바라는 것은 새로운 매체가 각 개인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위 대중매체와 미시적매체의 결합(Integration of Mass and Micromedia)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흐름에 있어 변함없이 참신한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SBS의 의지가 오늘도 차가운 네트워크 위에 숨을 쉬고 있다. **SBS**

글/김도현 · SBS 기획팀장

s.co.kr



대 그룹 부회장에서 웨이터로 변신한 그가 또 다시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사람들은 서상록 씨를 보고 '똥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인생에의 새로운 도전에 충실할 뿐 이라고 말한다.

1936년 경북 경산의 딸 많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서상록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상 정규 중고등학교 과정을 밟지 못했으나 고려대 정외과에 당당하게 합격할 정도로 끈기가 있다. 그후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정리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단신으로 생면부지의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다. 미국 베흐시장에서 각설이 타령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 회사를 세워 교민 사회의 재력가로 성장을 하며 그의 도전적인 삶을 미국에서 펼치게 된다. 여기서 그는 인일하게 있지 않고 겁 없이 미 하원의원에 도전하지만 세 번이나 고배의 잔을 마시게 된다. 하지만 그가 한국인이 미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후 삼미그룹 부회장으로 발탁되어 귀국했다.

그러나 97년 말 삼미그룹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자, 경영인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낸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눈금을 낮추어 평소 하고 싶었던 웨이터 직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는 들어오는 방송 제의를 마다하지 않는다. 저녁에 웨이터 일을 해야 하는 뽀뽀한 일과 속에서도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기꺼이 방송에 출연을 하려고 한다. 이유는 단 두 가지, 견습 웨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경제적인 측면의 보완과 나이 든 사람,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해서이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매체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어서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이 서상록 씨의 좌우명이고 보면 그동안 그의 행보를 짐작하고도 남음직 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남은 여생을 시골에 내려가 흙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서상록 씨,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조용히 웃는 그의 얼굴에서 아마도 이제 또 웨이터에서 연기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그의 말대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SBS**

글/최용욱 · 방송작가, 사진/조광희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방송가 사람들

아주 특별한 인터넷 쇼핑몰을 꿈꾸며

SBSi
www.sbs.co.kr

SBSi e-Commerce 팀장
진은희



#1 Interactive multimedia
content provider ... **SBSi**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미치는 영향을 굳이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편리함' 일 것이다. 특히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인터넷 홈쇼핑은 시간을 절약하고 직접 매장을 찾는 번거로움도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미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선점을 시작해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치열한 현장에 뛰어들어 정상 탈환을 꿈꾸는 당찬 여성이 있다. 2개월 전 쇼핑몰 사업에 뛰어든 SBSi의 진은희 e-Commerce 팀장이 그 주인공이다.

엔터테인먼트 살린 특별한 공간 준비중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경쟁도 커져가고 있는 인터넷 사업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가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은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좋은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이 단순히 광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장기적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뛰어 들어야하며 인터넷 쇼핑몰은 그 점에 있어서 새 사업으로 '체격'이라는 평을 내린다. 인터넷의 발달로 매장을 통한 상거래가 아닌 무점포 거래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매체 역시 인터넷뿐만 아니라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등으로 다양해 질 것이라고 그녀는 예상하고 있다.

그녀가 SBSi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큰 비전을 걸고 있는 것은 단지 이같은 시대적 흐름뿐만은 아니다. 인터넷의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쇼핑몰 사업 역시 콘텐츠 확보가 기본이며 원활한 사업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등 노하우가 필수 요소인데 SBS는 이미 다양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확실한 배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다가 공중과 방송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이를 상품화 할 경우 기존의 쇼핑몰과는 엄격히 차별되는, 그야말로 '특별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래 사업에 도전하는 열정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진팀장은 험난하고 고된 이 '바닥'에 뛰어 들기 전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기획에 대한

경력을 쌓아왔다. 삼성화학 소그룹 기획팀에 몸담고 있다 우연히 삼성물산 무점포사업팀으로 스카웃이 된 그녀는 이때부터 무점포 사업에 대해 기획부터 세팅까지 모든 일을 직접 도맡았다. 특히 이때부터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심을 두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탄탄한 경력을 갖추었다.

6개월 전 SBSi로 자리를 옮긴 그녀는 2명의 팀원과 호흡을 맞춰 쇼핑몰 오픈 작업을 시작했다. 비록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백화점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사업을 그녀는 단 4개월만에 끝마쳤다. 상거래를 한다는 것과 SBS의 의미를 모두 내포한다는 뜻에서 이름도 'BUY 6'로 정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쇼핑몰의 운영은 효율성에 있다고 봅니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물건만 갖춘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성도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대량으로 물량과 인력을 투자하면 당연히 보기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오히려 효율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 쇼핑몰이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 내실만큼은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처음 쇼핑몰 사이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질책을 늘 가슴에 담고 있다. 공중과 방송에서 상업성이 농후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 '품위'에 어긋난 일이라는 말에서부터 기존의 대기업 쇼핑몰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비판까지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찌르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날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다소 폄하하는 시선들을 한방에 날려버릴 일전을 준비중이다.

“우리가 단순히 물건 몇 가지만을 공급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지금의 모습은 사업의 시작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특히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은 우리만이 선보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품으로 탄생될 것을 자신합니다.”

자신의 일로 당당한 미래를 꿈꾸는 그녀의 모습에서 비장감마저 감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마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서의 한 구절이 그녀의 당찬 모습에서 더욱 도드라지는 순간이다. **SBS**

클/김정덕 · 자유기고가, 사진/김연식

착하게 놀아, 말어?

글/김갑수 · 「책하고 놀자」진행, 시인

“어떻게 날마다 그 많은 책들을 다 소화하십니까?” ● ● ● ● 「책하고 놀자」의 진행을 맡은 이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것이다. 눈을 둥그렇게 뜬 상대방은 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재차 되묻기도 일쑤다. “정말 그 책들을 다 읽으십니까?” ● ● ● ● 국내 유일의 매일 방송 책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된 지 1년여. 나는 줄지에 출판 평론가가 되었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서평 원고 청탁이 밀어닥친다. 아침에도 책, 점심에도 책, 때론 희뿌연 여명의 신세벽까지 ‘책책책’이다. 이런 판국에 어떤 이는 순박한 표정을 하고서 한마디 보탠다. ● ● ● ● “책 읽는 게 일이라니요! 그걸로 생활도 되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정말 부럽사와아아요…” ● ● ● ● 내가 복에 겨워 주제파악을 못하는 건가. ‘부럽사와아

책하고

요’ 하는 감탄사의 답변으로 비명이 튀어나오려는 때도 있다.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끔찍이 많다. ● ● ● ● 그러나 어쨌든 뒤집어 털어도 분명한 점은 이게 참 할만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고전적으로 정의해 교양과 오락이 방송내

용의 양대 축이라고 할 때 무늬아처럼 줄어들린 한국 방송계의 교양 함량에 책하고 노는 일은 명분과 실리를 다 보태줄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놀아주는가이다. ● ● ● ● 「어포스트로피」라는 프랑스의 텔레비전 프로

그램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매주 토요일 골든타임에 방송되는 그 책 프로그램이 프랑스 독서계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미국의 독서 프로그램도 자주 거론된다. 오프라의 한마디에 각종 책들이 죽었다 살았다 한단다. NHK를 틀

놀자

다가 종종 마주치는 서평 프로그램도 있다. 진행자 외에 한 너댓 명의 전문가틱한 분위기의 출연자들이 긴 테이블에 한 줄로 앉아 수다를 떠는데 그 열기와 분방함이 여간 아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이 그렇다는데 그럼 우리는? 보라, 「김갑

한국의 출판시장 규모가 세계 10위 권 안에 든다고 한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책을 소화하는 노하우는 「책하고 놀자」가 이제 겨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 그래도 대세는 꽤 고무적이다.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을 목말라 하던 '준비된 청취자'들이 예상밖으로 많기 때문이다.



수의 책하고 놀자」가 있노라! 라고 하기에는 좀 먼구스럽다. 책하고 노는 일이 아직은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프로그램 스태프들과 출연하는 저자들 중심으로 꾸려져 나가는 형편이니 말이다. 이 프로그램이 폭넓은 청취자 층의 진정한 독서마당이자 프로듀서의 기획취지인 오락처럼 책을 즐길 수 있게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계곡이 얼마나 첩첩한지 모른다.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 한국의 출판시장 규모가 세계 10위 권 안에 든다고 한다. 하지만 방송을 통

김갑수

해 책을 소화하는 노하우는 글썸다, 「책하고 놀자」가 이제 겨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 ● ● ● ● 그래도 대세는 꽤 고무적이다.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을 목말라 하던 '준비된 청취자'들이 예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중 어떤 지적인 열성 팬은 프로그램 이름을 「착하게 놀자」라고 장난스레 부르며 빈번히 글을 보내온다. 아마도 역설적인 의미일 것이다. 새로이 글을 써 책을 내는 행위는 기존의 통념에 착하게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펼쳐 변화를 꾀하는, 말하자면 착하지 않은 일이다. 그 착하지 않은 행위의 파장을 담아 유포시키는 「책하고 놀자」는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 ● ● ● 개그맨 이홍렬에서 민족시인 고은까지, 희대의 재담가에서 우두망찰 먹골 촌사 람까지 책의 저자는 그야말로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다. 그 각각의 캐릭터에다 카멜레온처럼 박자를 맞추다 보면 아연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저 혼자 잘난 듯한 진행자도 꼴불견이겠지만 그렇다고 저자의 홍보원처럼 끌려다닐 수만도 없다. 출연자와 청취자 사이에 삼각의 한 꼭지점을 이루고 내가 앉아 날마다 오락가락 한다. 이거 착하게 놀아, 말어? ● ● ● ● 그나저나 읽어야 할 책이 또 이렇게 쌓였네. 어떻게 그걸 다 읽느냐고 궁금해들 하지. 꼭 답변을 해야할까. 하라면 하지 뭐.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휴. **SBS**

영화 출구 조사로 새 정보 만끽

「이성미, 지식진의 라디오 데이트」



표준FM

매일 저녁 6시 30분 방송

청취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코너가 「이성미, 지식진의 라디오 데이트」에서 마련되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청취자들이 보낸 대소사에 관한 사연을 콘트로 엮어서 전통 음악에 맞춰 옛날 말투로 매일 소개하고 있는 '~감축하옵니다'가 그것. 이성미, 지식진 두 진행자의 개성을 한껏 살린 이 코너가 벌써부터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요일 특별 코너로 '윤현아 리포터의 시네 출구조사'도 또 다른 들을 거리. 자칫 무료해지기 쉬운 주말, 청취자들에게 볼 거리를 제안하는 코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에 대해 출구조사를 통해 관객의 반응을 직접 알아보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 코너에서는 평론가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작품이나 개봉 전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영화를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출구조사를 통해 평론가들에게 혹평을 받은 「아나키스트」가 관객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고, 찬반양론이 나뉘었던 「애너벨 청 스토리」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등 새로운 정보가 가득해 청취자들에게 재미를 더해 줄 것이다.

음악 듣고 퀴즈 풀고... 나도 영화 전문가?

오전 일과가 끝나갈 무렵, 진한 커피향 속에 아름다웠던 추억을 담가 보는 것도 직장 생활의 또 다른 멋일 것이다. 여기다 옛날 가슴 아파하며 보던 영화의 주제가가 흐르다면 금상첨화. 이 상콤한 여유에 「심혜진의 시네타운」이 마련한 '영화를 향해 싸라'에서 나오는 각종 퀴즈는 톡톡 튀는 재미를 더한다.

매주 월요일, 모든 장르의 영화음악을 들어보고 진행자가 내는 문제를 풀어보는 코너로 영화이야기와 영화음악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싸라」에서 나온 코너명 '영화를 향해 싸라'는 '배우 탐 크루스가 출연했던 작품들은?', '감독이 직접 출연했던 작품들은?' 등과 같이 음악을 듣고, 공통점을 찾아가며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진행자 심혜진이 영화배우로서 풀어놓는 영화에 관한 에피소드도 또 다른 들을 거리.

아름다운 영화음악을 놓치지 싶은 청취자라면 「심혜진의 시네타운」에 주파수를 고정해야 할 것이다. **SBS**

매일 오전 11시 방송



파워FM

「심혜진의 시네타운」

SBS 아트텍, 롯데월드 내 테마 스튜디오 착공

SBS 아트텍(사장 박충)은 롯데월드 내에 SBS 테마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착공식을 가졌다.

1,000여 평 규모로 설립될 SBS 테마 스튜디오는 방송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게 라이브 스튜디오와 디지털 스튜디오로 나뉜다.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방송 장비를 모두 디지털화하여 주로 SBS의 라디오 공개방송과 각종 라이브공연, 특집방송, SBS의 제작발표회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디지털 스튜디오는 N세대들의 복합 오락공간으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끼를 펼쳐보이는 스타 오디션 코너, N세대들의 결혼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사이버 웨딩 코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SBS 테마 스튜디오는 유동 인구가 많은 롯데월드의 공간을 이용해 시청자와 직접 대화하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SBS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www.sbs.co.kr 사이트 개편

사명 변경에 이은 전체 사이트 이미지 개선

SBSi(대표 박찬근, 윤석민 <http://www.sbs.co.kr>)는 5월 15일 새 모습으로 사이트를 단장해 네티즌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사이트 개편은 SBSi가 보유한 상당량의 정보를 네티즌이 쉽게 찾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800×600크기의 한 화면에 내용을 담아 스크롤 없이도 한 눈에 레이아웃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디자인 구조의 일관적 배열을 비롯해 뉴스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속보 기능을 갖추으로써 공중과 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으로도 뉴스를 즉시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적으로도 홈페이지의 로딩 속도 개선과 업데이트 기능 강화로 페이지가 빠르게 열리도록 했다.



세련된 칼라메치는 사용자가 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뉴스, 드라마, 스포츠, 뮤직, 연예, 오락, 교육,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도록 개편했다.

SBS는 앞으로도 인터넷 방송과 온라인 쇼핑 페이지의 개편과 각 카테고리별 하부 콘텐츠의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지난 4월 3일 SBS인터넷에서 SBSi로의 사명 변경에 이어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함으로써 또 한번 새롭고 강화된 콘텐츠로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SBSi 컴팩코리아와 전략적 제휴

SBSi는 지난 5월 10일 조선호텔에서 컴팩컴퓨터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날 제휴식에는 SBS 송도군 사장, SBSi 윤석민 대표, 장진호 이사 등이 참석했고, 컴팩컴퓨터에서는 마이클 카플라스 CEO와 폴 찬 아시아 태평양 사장, 강성욱 컴팩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컴팩코리아가 SBSi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술적 자문,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되며, SBSi의 시스템 장비에 대해 무상대여를 하게 되는 등 시스템기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SBSi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비를 컴팩코리아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제휴관계를 통해 양사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 필요한 공동 프로모션의 진행 등 제반 업무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제휴식은 마이클 카플라스 컴팩컴퓨터 회장이 SBS 송도균 사장에게 휴스턴에서 직접 가지고 온 카우보이 모자를, 송도균 사장은 주식으로 만들어진 용 조각 목걸이를 선물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의 협력관계가 돈독해 지도록 양사가 함께 협력한다는 기본 취지를 재확인했다.

(주)SBSi, (주)캔디인터랙티브와 본격 인터넷 방송 서비스

(주)SBSi는 인터넷 콘텐츠 제작 전문 회사인 (주)캔디인터랙티브와 함께 공동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현재 300여 개의 인터넷 방송이 경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시장은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다. 울들어 이들에 하나 꼴로 인터넷 방송국이 설립되는 등 인터넷 벤처업계의 가장 유망한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병진, 오지명, 김정민 등의 연예인들이 주축이 된 인터넷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도 최근 현상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에 맞는 콘텐츠 소재 발굴과 기존 광고모델 이외의 흡쇼핑, 고급 유료 정보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이 사업의 성패로 인식되고 있다.

(주)캔디인터랙티브는 방송 외주 제작업체인 캔디프로덕션(사장 김형수)과 SBSi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인터넷 콘텐츠 개발회사. 이 회사는 앞으로 인터넷 방송물에 쌍방향 기술을 접목한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SBSi는 우선 (주)캔디인터랙티브와 드라마, 정보프로그램, 연예 오락물 등에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차별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6월 1일부터 정규방송에 도입할 계획이다.

“SBS인터넷 방송은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서비스 및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터넷 방송 형식을 제안할 것”이라고 캔디인터랙티브 측은 설명하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 결합을 통한

쌍방향 인터랙티브 콘텐츠 생산에 주력

SBSi는 신설 드라마 및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홈페이지의 개설 등을 통해 쌍방향 인터랙티브 콘텐츠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번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드라마 「팝콘」, 시트콤 「돈.com」, 토크 쇼 「김혜수 플러스 유」 외에도 「좋아 좋아」, 「뷰티풀 라이프」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 사이트를 오픈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송시청에 대한 소감 등을 즉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청자의 의견을 심분 반영한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수준높고 고객지향의 방송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SBS**



바로 잡습니다

지난달 「SBS매거진」 5월호 9쪽에 있는 「글/남도영 · 문화일보 방송담당 기자」를 「글/남도영 · 국민일보 방송담당 기자」로 정정합니다.

KTV

MON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제작 시리즈
- 11:55 짱이와 깨모
- 12:00 정겨운 우리가족

TUE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제작 시리즈
- 11:55 짱이와 깨모
- 12:00 정겨운 우리가족

WED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제작 시리즈
- 11:55 짱이와 깨모
- 12:00 정겨운 우리가족



SBS

CHANNEL 6 2000년 6월 1일 현재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45 짱구는 못말려
- 6:15 드래곤 볼
- 6:45 행진
- 7:15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드라마 도둑의 딸
- 10:55 이홍렬 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골프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신기한 동물나라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45 짱구는 못말려
- 6:15 드래곤 볼
- 6:45 행진
- 7:15 미술의 신비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드라마 도둑의 딸
- 10:55 오늘과 내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신기한 동물나라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45 빅토리 구슬동자
- 6:15 포켓 몬스터
- 6:45 행진
- 7:15 머리가 좋아지는 TV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드라마 스페셜 짝꿍
- 10:55 김혜수 플러스 유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권용운, 표인봉, 변진섭, 남궁연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이홍렬 쇼」 유부클럽 2기 출범

진솔한 대화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홍렬 쇼」의 '유부클럽'이 6월 중순부터 새 단장한다.

이홍렬, 박철, 권오중, 표인봉 등의 기존 멤버 중 표인봉만 남고 나머지는 교체될 예정이다. 2기 새 멤버로는 변진섭, 권용운, 남궁연 등으로 30대를 대표할 이들의 활약이 최대 관심사다. 젊어진 2기는 최근에 결혼한 사람부터 결혼 10년차, 부인이 연상인 사람, 띠동갑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등 여러가지 유형의 갖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멤버들의 입담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검증 받은 바 있다. 제작진은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이들의 모습을 잘 잡아낼 것이라고 야무진 포부를 내비치며 입담과 편집 사이의 대결 또한 볼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남자들의 수다 마당, 유부클럽. 특히 최대 화제였던 유부남갈지 않은 유부남, 권오중의 폭탄(?) 발언 이상의 복병 출연이 은근히 기다려지는 것 또한 유부클럽의 매력이다.

THU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실속 TV! 사선 집중
11:55 짱이와 깨모
12:00 정겨운 우리기락

FRI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금요 컬처클럽
11:55 짱이와 깨모
12:00 정겨운 우리기락

SAT

AM

6:00 토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착한 남자
9:00 토요 스타클럽
10:00 생방송 행복찾기(1부)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SUN

AM

6:00 일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1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00 오늘과 내일
8:50 일요아침드라마 좋아 좋아
9:50 러브게임
10:50 좋은 친구들



PM

4:00 마법의 섬 떠도 떠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빅토리 구슬동자
6:15 포켓 몬스터
6:45 행진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드라마 스페셜 팔콘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로봇군단과 메카3
6:15 카드캡터 체리
6:45 행진
7:15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기분 좋은 밤
10:55 영화특급

PM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0 SBS 뉴스
4:50 순풍 산부인과 스페셜
5:40 기분 우리 토요일
6:50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8:00 SBS 8 뉴스
8:25 톤.COM
8:50 SBS 창사10주년 특별기획 덕이
9:50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10:50 그것이 알고싶다
11:50 토요 스페셜 아름다운 성

PM

12:00 SBS 뉴스
12:10 접속! 무비 월드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0 SBS 뉴스
4:50 생방송 SBS 인기가요
5:40 호기심 천국
6:50 뷰티풀 라이프
8:00 SBS 8 뉴스
8:25 톤.COM
8:50 SBS 창사10주년 특별기획 덕이
9:50 일요드라마 카이스트
10:50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AM

00:35 SBS 나이트라인
00:50 스포츠 와이드

AM

00:50 SBS 나이트라인

AM

00:00 SBS 나이트라인
00:10 스포츠 와이드
00:20 생방송 토크넷 쇼

동아리 이카루스와 장이를 통해 보는 젊음, 그 아름다움

「카이스트」 출연진 교체 등 새단장

일요 드라마 「카이스트」가 6월 4일부터 출연진을 전원 교체하고 동아리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한다.

새로 투입된 연기자들은 「학교2」의 기태영, 「점프」의 이재황, 「나쁜 친구들」의 김민정, 「뮤직 캠프」의 홍수현, 「학교」의 김정욱, 「여고괴담 2」의 김재인 등으로 대부분이 신인이다. 교수진도 대폭 교체되어 백일섭, 윤여정, 김창완 등이 출연하며, 신진 작가들이 펜대를 잡고 있어

신선함이 예상된다.

「카이스트」의 새로운 무대는 모형 항공기 및 로켓 동아리인 '이카루스'와 발명 동아리인 '장이'. 엘리트 집단인 이카루스와 아웃사이더가 모인 장이, 이 두 동아리 사이에서 빛어지는 갈등과 우정을 통해 카이스트 학부생들의 생활이 그려진다.

좋은 성적에 면접까지 거쳐야만 입학할 수 있는 이카루스 회원들이 회원조차 남아있지 않아 거의 유명무실한 장이 동아리방을 사용하면 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장이에 회원들이 모여들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동아리는 한 방을 쓰게 되고, 이들의 운명적인 대결은 시작된다.

표준

표준

**FM 103.5MHz
AM 792KHz**

SBS

CHANNEL 6 2000년 6월 1일 현재

MON - SAT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굿모닝 일본어
- 6:30 봉두완의 SBS 전망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봉두완의 SBS 전망대
- 8:30 노성태의 경제레이다
- 8:40 새 천년 명인에게 듣는다
- 8:55 공향정보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 배기완입니다
- 11:05 김찬식의 세상 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정선희 · 김진수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30 이성미,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야근비행
- 1:00 Music Topia
- 4:00 쿵쾅! 노래는 트롯트

월~토요일

-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SUN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SBS 일본어 첫걸음
- 8:05 조정철의 자동차 25시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 배기완입니다
- 11:05 김찬식의 세상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정선희 · 김진수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30 이성미,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야근비행
- 1:00 Music Topia
- 4:00 쿵쾅! 노래는 트롯트



일본 관광 전 필수 코스

「SBS 굿모닝 일본어」

올 여름 휴가를 일본사람들이로 결정한 청취자들을 위한 제안 하나. 매일 아침 30분씩 선보이는 「SBS 굿모닝 일본어」에서 6월과 7월 두달 동안 관광일본어 강좌를 마련하였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을 위해 일본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사전 답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교재 「SBS 굿모닝 일본어」에는 일본의 관광 명소를 자세히 소개하는 등 생생한 정보도 담겨있다.

「SBS 굿모닝 일본어」은 교재를 중심으로 먼저 관광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간단한 회화를 기본으로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오늘의 회화」와 문법과 단어들의 여러 가지 사용법을 배우는 「문법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고, 회화를 응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진행은 현재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활동중인 김혜원 씨와 재일교포이자 연세대 언어교육원 일어과 교수 남상영(미·미·쇼에이) 씨가 맡고 있다. 이들 진행자들은 일본 생활의 경험을 살려 교재에 바탕을 둔 강의와 듣기연습이 될만한 회화로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연출/은지향, 진행/김혜원, 남상영 월~토요일 오전 6시30분 방송

MON - SAT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박철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승현이의 텐! 텐! 클럽

AM

-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1:00 스위트 뮤직박스
- 3:00 사운드 오브 뮤직

SUN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박철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승현이의 텐! 텐! 클럽

AM

-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1:00 스위트 뮤직박스
- 3:00 사운드 오브 뮤직

ME
F
POWER
107.7MHz

S
B
S



드라마로 배우는 영어 공부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이미 필수요건이 되어버린 영어. 어렵고 두렵지만 한 영어공부를 드라마에 응용해서 배워보면 어떨까. 매일 아침 6시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는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수많은 청취자들을 위해 해결사로 나섰다.

우선 「곽영일의 파워 잉글리쉬」에선 코너 'power pops in english'를 통해 팝송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가사를 탐독하면서 영어

를 배울 수 있다. 또한 'english in drama'에선 SBS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영어로 옮겨 갖가지 표현을 배워보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며 Q&A 시간엔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교재 'SBS power English'를 중심으로 엮여지는 이 프로그램은 곽영일 씨가 진행하고 있어 영어실력향상에 신뢰감을 더한다. 교재 'SBS power English'는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표현을 영어로 배워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출/김삼일, 진행/곽영일 매일 아침 6시 방송

cinema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금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홍길동(북한 영화)

감독/김길인

주연/리영호, 박춘희

방송/6월 9일 · 담당PD/김박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제작소가 1986년에 제작한 순수 극영화로 이념과 사상을 배제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기념하기 위한 방송. 서자로 태어나 늘 천대를 받고 자란 홍길동은 산속에 들어가 도술을 뒀는다. 그는 총명한 머리로 학식이 뛰어날 뿐 아니라 둔갑술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의 멸시를 참지 못하여 집을 뛰쳐나온 그는 적굴에 들어간 후 두목이 되어 활빈당을 조직해, 탐관오리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양민을 돕는다. 결국 나라에 큰 공을 세우기도 하는 홍길동이지만 왕은 천첩의 자식이라고 하여 사랑하는 처녀와 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의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복수무정

원제/HARD TO KILL

감독/브루스 멀머스

주연/스티븐 시걸

방송/6월 16일 · 담당PD/김하정

거대한 정치적 음모를 파헤치려는 스톰 형사는 한밤중 뒷골목에서 야심가인 하원의원 트렌트가 조직폭력배들에게 돈을 주며 상원의원을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은밀히 녹화하다가 들킨다. 트렌트는 하수인인 경찰조직을 이용하여 스톰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지만 부인만 죽고 어린 아들은 탈출, 스톰은 혼수상태에 빠진다. 스톰은 병원에서 7년만에 의식을 회복하지만 또다시 트렌트 일당에게 쫓기게 된다. 간호사 앤디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한 스톰은 건강을 회복한 뒤 복수의 길에 나서는데...



러브 앤 워

원제/IN LOVE AND WAR

감독/리처드 아텐보로

주연/산드라 블록, 크리스 오도넬

방송/6월 23일 · 담당PD/김박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연합국으로 참전을 결정하자 젊은 어네스트 헤밍웨이(크리스 오도넬 분)도 자원 입대하지만 그는 폭격으로 부상당한다. 아전병원에 입원한 어네스트는 미국 적십자 의료진으로 와 있는 간호사 아그네스(산드라 블록 분)를 만난다. 아그네스는 다리를 절단해야 안전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반박하여 어네스트의 다리를 구해낸다. 이후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헤어지게 되고 8개월 후 아그네스가 미국으로 어네스트를 찾아오는데...

홍변구

원제/RUMBLE IN THE BRONX

감독/스탠리 톱

주연/성룡

방송/6월 30일 · 담당PD/배숙현

홍콩에서 경찰생활 10년째인 이강은 미국에서 수퍼를 하고 있는 숙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으로 간다. 뒤늦은 결혼을 한 숙부는 흑인 아내와 농장을 경영하며 오붓한 생활을 하기 위해 수퍼를 의령에게 판다. 의령은 수퍼를 열심히 운영하지만 불량배들이 보호세를 요구하며 도둑질과 폭력을 일삼아 운영을 방해한다. 우연히 폭력배의 횡포를 목격한 이강은 격전 끝에 그들을 물리친다. 불량배 패거리들은 이강을 급습하고 이강은 나이트클럽 댄서인 매혹적인 낸시의 간호를 받게 되는데...

삶에 희망을 주는 사랑의 햇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폐동맥판막이 없었고, 폐동맥 2개가 모두 좁아져 있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 여덟 살 승호가 그랬다. 생후 8개월에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3살 되던 해의 수술, 그리고 다시 여덟 살에 수술대에 누워야 했던 승호. 다른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지 못하고 항상 어둠 속에서 혼자 놀아야했던 승호에게는 플라스틱 로봇이 유일한 친구였다.

그런 승호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8년 동안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마흔을 훌쩍 넘긴 늦둥이의 부모. 수술실 앞에서는 어린 승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소도 짓고, 수술 후 시띔 장난감에 대해서 승호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도 한다.

한 심장병재단의 도움을 얻어 어렵게 수술하는 승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다. 수천만 원의 수술비를 마련해준 사람들도 그렇지만, 수술 후의 치료비를 무료로 해준 병원, 잠시도 월 틈 없는 근무 환경 속에서도 가까이 승호를 위해서 헌혈하기 위해 찾아온 부천시 경찰관들.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이 모여 큰 힘이 되었다. 그 힘은 8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던 승호에게 환한 봄 햇살과 같은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랑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승호에게 앞으로 지금까지 보다 몇 배나 소중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6시간 30분의 수술, 폐동맥을 넓히고 인공 판막을 설치하는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 수술 전날 유난히도 잠투정을 했던 승호의 얼굴은 이제 천사같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승호는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 그토록 꿈꿔왔던 운동장을 뛰는 일도 이전 승호에게 가능한 일이다. 친구들과 공을 차며 달리는 승호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건강함을 느낄 것이다. 병원 구석구석을 누비며 모든 것이 재밌고 신나던 승호, 그에게 넘치는 생명을 되찾아준 것은 우리 모두의 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데 선(善)의 근본이 있다는 슈바이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다. **SBS**

손범규 · 아나운서, 「밀레니엄 리얼코리아」 진행

